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결과 보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황해권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01년 이후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

- 15년 간 한국 1,555명·중국 1,866명·일본 2,049명 합계 5,470명 참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간 산학관 협력, 도시환경 개선, 철도·항만 복합물류, 전시회 개최, 산업단지개발, 공동연구, 인재육성 등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인재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실행

1.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 개요

- 일시 : 2016. 7. 12(화)~14(목)
- 장소 : 중국 장쑤성 옌청시 영빈관
- 참석 : 한국·중국·일본(규슈)의 정부,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309명(한 84, 중 170, 일 55)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부산·대구·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한중일삼국협력사무국, 경제단체(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 KOTRA 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84명

※ 환황해 지역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4시7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중국】 상무부, 지방 정부, 경제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70명

※ 환황해 지역 : 산둥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장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4성 3시)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지자체, 규슈경제연합회, 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55명

※ 환황해 지역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7현3정령시)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구마모토시

○ 주최 및 주관

구분	주최	주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무역조사실장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종윤 상근부회장
중국	상무부 아주사 송 야오밍 상무참사관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기시모토 요시오 국장	규슈경제연합회·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아소 유타카 회장

- 회의 테마 : '녹색경제·혁신성장과 개방·융합'

2. 주요 성과

-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 한중일 삼국이 과당경쟁 관계를 피하고 산업내 분업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
 -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산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3국간 무역·투자·기술·인재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배가까이 성장
'01년 약1,600억 달러 → '15년 약5,700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18%로 증가)
-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해 에너지·환경, 첨단제조, 전자상거래·물류·유통, 산업단지특구, 인재양성 분야의 윈윈방안 제시 및 상호 공동번영을 통한 환황해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전기차산업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과학금융서비스 협력, 중국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텐진·허베이) 프로젝트 협력, 쿼슈관광 협력, 도시·농촌 비즈니스 협력 등 제언
 - 차기회의(제16회 환황해 회의)는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개최
- 3국 국장회의에서 한중일 3국 공동연구 21개 제언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 합의
 - 3국 공동연구 : (한) 가공식품·코스메틱·헬스케어 분야, (중) 산업단지·전자상거래·무역투자 분야, (일) 재생에너지 분야
 - 3국 공로자 표창(기업 등 법인·개인부문, 지방공공단체·경제단체부문 각1명씩 총 6명에 대해 대상을 수여)으로 한중일 지역협력촉진의 동기부여·확산
- 한중 기업 비즈니스 매칭
 - 한국 27개 기업, 중국 73개 기업 간 157건의 비즈니스 매칭
- 한국경제, 신화통신, Yanfu people's daily, 염성만보 등 언론보도를 통해 한중일 간 경제협력을 홍보

-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 실제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은 첫 회의가 개최된 2001년 1,638억 불 규모에서 2015년 5,687억불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해 왔음

- 한중일 세 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15%(17.1조 달러)와 교역량의 19%(6.1조 달러), 세계인구의 20%(15억 명)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편임
- 금번 회의시 ‘한중일 전기차 산업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과학금융서비스 협력’, ‘중국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프로젝트 협력’, ‘큐슈관광 협력’, ‘도시·농촌 비즈니스 교류’등 한중일 지역 교류 확대를 위한 3국 상호협력제안사항으로서 총 6개의 협력 사업을 제안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① 한중일 전기차 산업 협력 ②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중국	① 과학금융서비스 협력 ② 중국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톈진·허베이) 프로젝트 협력
일본	① 큐슈관광 협력 ② 도시·농촌 비즈니스 교류 ③ 제16회 환황해 회의 유치(가고시마현)

- 2015년에 이어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의 지속적인 표창 실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산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다른 지방 공공단체 및 경제단체, 기업의 활동 의욕을 고취시켜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
 - 표창 부문 : 한중일 각국은 아래의 2개 부문에서 매년 각 1개사(1명)를 본 회의에서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등 법인·개인부문 : (한)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승율 이사장, (중)칭다오국제경제협력구관리위원회 장젠궈(張建國)부주임, (일)키요모토철공주식회사 ○ 지방공공단체·경제단체부문 : (한)한국산학연합회 서동석 회장, (중)장쑤성 상무청 마밍룽(馬明龍) 청장, (일)공익재단법인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
--

- 환황해 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3국 정부대표자 회의에서는, (韓) 환황해지역 경제발전방안 공동연구 21개 제언사업의 실행(D/B구축 등), 클러스터간 협력, 코스메틱·뷰티박람회 연계협력 (中) 지역간 경제협력 동반자관계 구축과 산업단지 교류 강화,

(日) 기업간 공동가치 추구, 농림수산업·관광 비즈니스에서의 지역간 인재·상품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구분	제안 내용
한국	① 3국 공동연구(환황해 지역 경제발전 방안) 21개 제안 사업의 실행 ② 클러스터간 협력 ③ 코스메틱·뷰티박람회 연계협력
중국	① 지역간 경제협력 동반자관계 구축 ② 산업단지 교류 강화
일본	① 공동가치 추구(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의료, 식문화, 관광) ② 농림수산업·관광 비즈니스에서의 지역간 인재·상품교류 활성화

- 3국 국장회의 합의사항으로 실시한 환황해지역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3국 공동연구조사의 최종결과 발표

<환황해지역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21개 협력사업>

□ (한국) 가공식품·코스메틱·헬스케어 분야

- ① 환황해 지역 공동의 기업 D/B 구축사업,
- ②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활용한 비관세조치 협의채널 구축,
- ③ 3국 환황해 지역 농업원료·가공식품 공급망 구축,
- ④ 환황해 가공식품 클러스터간 협력 추진
- ⑤ 코스메틱&뷰티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공동운영,
- ⑥ 코스메틱 & 뷰티 박람회 연계 운영 및 지원,
- ⑦ 의료기기 박람회 개최(바이어 매칭),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활용한 협력사업, 의료기기 인증 관련 협력체제 구축,
- ⑧ 의료협력과 관광의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큐슈지역의 요양 시설을 활용한 인적교류와 비즈니스 매칭

□ (중국) 산업단지·전자상거래·무역투자 분야

- ① 환황해 지역 산업단지 간 협력모델 모색,
- ② 산업단지의 협력영역 확대,
- ③ 산업단지의 저탄소 녹색발전을 장려,
- ④ 3국 경제·무역 협력기제 건설을 강화,

- ⑤ 투자·무역 편리화를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건설 강화,
- ⑥ 수출입 편리화를 위한 협력 확대,
- ⑦ 환황해 지역 상호투자 편리화 추진,
- ⑧ 3국 정부간 정책적 소통 강화,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신뢰확보,
- ⑨ 물류시스템의 공동구축을 우선과제로 선정,
- ⑩ 3국 환황해 지역 전자상거래 A/S 서비스 보장협력강화

□ (일본)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모델

- ① 환황해 지역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지도 작성,
- ② 환황해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비즈니스 포럼(가칭)의 실시 검토,
- ③ 해상풍력발전 등에서의 민간 비즈니스 활동 지원

- 연계 행사로 개최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의료·바이오 분야, 산업단지·물류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비즈니스 교류 촉진·강화를 위한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3국간 협력 방안 제시
-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이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 투자유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산업단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역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3국 지역 간 실질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
- 「환황해 총장포럼」에서는, 환황해 연안지역에서의 산학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산학관 협력 플랫폼 구축함으로써 프로젝트 정착을 촉진하고, 인재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인식을 공유

- 포럼 주요논의 내용

구분	제 안 내 용
<p>환황해 비즈니스 포럼</p> <p>「녹색경제와 혁신성장」</p>	<p>□ 환황해지역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제시</p> <p>○ 에너지 환경·첨단제조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환경 친화형 스마트카 이차전지 산업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및 자원의 상호보완관계 유지(韓중대형전지, 中자원·시장, 日기술 성숙도) - (중)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 자동차산업 협력, 텐진 국제 상거래 단지 협력, 칭다오 한중협력생태 스마트시티 건설 협력 - (일) 식품 폐기물의 지역 순환권 형성, 비데의 플랫폼화와 생산 프로세스 개혁 <p>○ 전자상거래·물류·유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 - (중)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무역 증진, 녹색 스마트단지 조성 협력, 다렌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건설 협력 - (일) 초국경전자상거래 협력, 구마모토현 관광자원 소개
<p>환황해 산업단지·특구 포럼</p> <p>「산업단지간 협력 강화」</p>	<p>□ 한중일 산업단지·특구 협력 모색</p> <p>○ 산업단지 건설·운영, 투자유치 정책·경험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한중산업단지 협력(새만금),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과 중일 산업단지간 협력 - (중) 한중일 산업단지 협력, 중한지방경제무역협력 모범단지 건설 협력, 상하이 자유무역단지 건설 협력, 중한산업단지소개(엔타이시) - (일)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 글로벌 창업·고용 창출 특구 소개
<p>환황해 총장 포럼</p> <p>「산학협력 인재 교류 촉진」</p>	<p>□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교류 협력 방안 제시</p> <p>○ 산학관 협력과 혁신, 창업 등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인식을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육을 통해 산학관 협력 강화와 협업, 혁신 추진 -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인

구분	제 안 내 용
	역할 발휘 필요 - 산학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 기업의 협력 심화, 사회적 서비스 강화 필요 -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과 혁신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필요 - 산학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와 프로젝트 정착을 촉진하고, 산업의 규모확대와 실력확대를 돕는 기반 구축

- 「환황해 한중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한국측 기업 27개사와 중국기업 73개사, 양국 총 100개기업이 참여하여, 157건의 상담 실시

분야	한국측	중국측	상담건수	상담금액	성약가능 추정금액
환경산업/생활용품 자동차부품 IT, 스마트기기 등	27개사	73개사	157건	6,892만달러	570만달러

3. 평가

- 이번 회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3국간 경제교류 회의로서, 21세기를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음
- 환황해 공로자 표창의 정례화, 산업내 분업을 통한 환황해 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 수립·로드맵 작성·정책제언, 지역 산업 육성 정책 공유, 글로벌 인재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
 - 한중일 3국 간 무역구조는 일본은 한국에, 한국은 중국에, 중국은 일본에 각각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가 되고 있음

-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해 ‘녹색경제·혁신성장과 개방·융합’을 테마로 하여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 포럼’, ‘환황해 대학총장 포럼’ 등 3개 포럼을 병행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 구축에 기여

4.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3국간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한중일 3국 공동연구에서 제안한 21개 과제에 대해 향후 3국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논의를 거쳐 예산확보 및 사업 실행
 - 3국 실무자간 연중 네트워크 구축 및 3국 간 회의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 협의
- 대학·연구기관 참가자들을 본회의의 싱크탱크로서 활용하여 3국간 경제협력 아이디어를 발굴
- 환황해 총장포럼은 환황해 연안지역에서의 산학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산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

첨부1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주요발표내용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1세션 : 에너지환경과 첨단제조】

발표자	하북성 창저우시 상무국 순시량 부국장
주 제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창저우 자동차산업 발전 촉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일본과의 활발한 경제교류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창저우시 소개 및 편리한 교통, 풍부한 자원, 튼튼한 기초산업,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창저우시 향후 자동차 산업의 메리트, 미래 자동차 도시의 건설을 기획하고 있는 창저우시의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과 비전

발표자	텐진항공물류발전유한공사 자오성웨 사장
주 제	텐진 항공물류단지내 국제전자상거래산업단지의 특색과 발전 촉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년 베이징과 협력하여 한국 인천공항의 수준을 뛰어넘는 동북 아시아지역의 핵심 글로벌 항공물류센터 건립 목표 ▶ 텐진시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의 화물항공노선 네트워크의 형성, 원활한 세관통관, 다양한 화물처리, 수준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구축 ▶ 운송기업과 서비스기업 그리고 감독관리기관의 상호연결을 통한 통관의 편의성 등 일체와, 원스톱 투자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혁신 서비스 제공

발표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중국사업소 황유순 소장
주 제	칭다오 한중협력생태스마트시티 건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의 해외 진출 사례로 한중협력을 통해 중국 칭다오에 건설 예정인 복합신도시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는 스마트기술을 미래형 첨단 도시에 적용시킨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도시 공간 개념을 결합한 도시 건설

발표자	즐거운주식회사 松尾 康志 (matsuo yasushi) 대표이사
주 제	자원순환 사회와 공생한 저탄소 지역 만들기-식품폐기물의 지역순환권 형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리사이클법의 식품 순환 자원의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일본 기타큐슈시 환경국,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즐거운 주식회사의 식품 폐기물 지역 순환 시스템 ▶ 식품 폐기물 지역 순환 형성을 통해 저비용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저탄소로 가치 창출

발표자	TOTO 상하이 유한공사 石澤 元基(ishizawa motoki) 제조부장
주 제	비데의 플랫폼화에 따른 생산 프로세스의 개혁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TO(주)의 소개 및 비데의 기능 변천과 상품 개발의 스피드 업을 위한 플랫폼화의 실현 ▶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 방식에 의한 다품종 대량 생산 가능

발표자	중앙대학교 윤성훈 교수
주 제	환경친화형 스마트카 이차 전지의 동향과 한중일 협력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전지전압과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며 가벼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채용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의 장점과 시장 현황 ▶ 전기자동차용으로 2020년 폭발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의 수요와 전망,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한중 전기버스 전지 재활용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제안 ▶ 한중일은 기술 및 자원의 상호보완적인 우호관계 유지는 물론 과도한 경쟁형 기술 및 제품 개발이 아닌 상호인정을 통한 동반자적 발전이 필요 <p>※ 한중일 협력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은 1) 스마트카 전지 시장 중심지역, 2) LIB 전지기술의 세계최고 기술 보유지역, 3) 양극/음극용 자원 풍부 지역 ▪ 중국 : 아시아 최고의 흑연 매장국으로 음극에 사용되는 천연 흑연의 저가 고품질 공급 가능 ⇒ 풍부한 자원 및 시장 ▪ 일본 : 기술의 성숙도가 높음 ⇒ 소형 전지 기술 기반의 EV적용 ▪ 한국 : 새로운 기술 적용이 빠름 ⇒ EV용 중대형전지 최고 기술 ▪ 재활용 전지의 재사용 : 소형 ESS 재구축 사업 실시 및 재사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2세션 : 국제전자상거래와 물류·유통】

발표자	DHgate 왕잉 정부사무담당사장
주 제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무역시대
내 용	▶ 중국 최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로, 전자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DHgate.com 무역플랫폼의 규모 및 특징 소개

발표자	텐진즈야 경제기술개발구 웨이젠쥔 주임
주 제	혁신주도형 성장을 통한 녹색스마트단지 조성
내 용	▶ 국제 일류의 국가순환경제시범지구로서의 텐진즈야순환경제산업단지 소개

발표자	다렌시 대외경제무역국 왕리잉 국장
주 제	중국 다렌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실험단지 건설 방안과 지원 정책
내 용	▶ 동북을 리드하고,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거점으로 다렌글로벌전자상거래종합시험단지 기능

발표자	(주)큐슈식품유통과학연구소 小林 修(kobayashi osamu) 사장
주 제	초국경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과제
내 용	▶ 음식과 건강을 키워드로 하는 국제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인구의 급증, 중산층과 부유층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그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 전망 ▶ 이에 따른 식품안전, 인증부가가치, 공통규칙에 있어서의 한중일 상호 협력이 필요

발표자	구마모토현 상하이 사무소 垣下 美那子(kakishita minako) 수석대표
주 제	구마모토현 관광 자원
내 용	▶ 쿠마모토의 온천 및 크루즈 여행 등 관광자원 소개

발표자	KOTRA 글로벌파트너링실 김상목 실장
주 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필요성 및 협력 방안
내 용	<p>▶ 시장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디지털 싱글 마켓 관련 로드맵 구축, 주요 플랫폼 해외 진출 ▪ 중국 : 모바일상거래 규모, 미국의 4.5배, 주요 플랫폼 동남아로 사업확장 ▪ 일본 : 라쿠텐, 라인 해외진출 및 투자은행의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 확대 <p>▶ 미국 및 EU 디지털 시장 단일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역내 단일시장을 위한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의 필요</p> <p>▶ 한중일 3국 디지털 싱글마켓 협력방안으로서 각종 법률, 제도의 조화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장벽 완화, 제품인증 및 규정 통일, 기술의 호완성과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지식재산권과 소비자보호, 물류의 최적화, 전자결재의 편의성과 보안에 관한 민간차원에서 협력과제 제시</p> <p>※ 한중일 협력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구축 예정인 ‘디지털 싱글마켓 로드맵’ 구축 과정에 참여 :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추진 ▪ 플랫폼 및 운영관련 기업간 정기 교류 및 협업사업 추진 :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반송환불에 관한 규정 통일, 정품 인증 사업 등 ▪ 소비자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 플랫폼 기업 및 3개국 정부 관계자의 합동회의 개최 ▪ 물류시설 공유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

발표자	중국상무부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송즈용 소장
주 제	한중일 산업단지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은 각각 세계 11위, 2위, 3위로 큰 경제체로 3국을 합치면 전 세계 경제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3국은 상호 투자 및 수출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역파트너임 ▶ 한중일 3국은 산업단지협력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협력방안 (지적재산권보호시범 지역설립, 세관절차 간소화와 무역편리화, 연합하여 제3국으로의 시장개척 등)을 제시

발표자	옌청시 인민정부 저우샤오첸 부시장
주 제	한중지방경제무역협력모범단지 건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한중 양국 정상은 한중산업단지 공동건설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장쑤성과의 경제무역협력의 양해각서 체결, 두 나라가 공동으로 한중산업단지의 건설을 추진키로 합의. ▶ 한중옌청산업단지의 자동차산업, 태양광 산업 등 10대 협력 사업 추진 계획과 옌청산업단지의 풍부한 인력자원, 편리한 교통 등 산업단지 소개

발표자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역관리위원회 보세구관리국
주 제	국제적 통용 규칙의 벤치마킹으로 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험단지 건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이고 투명한 투자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자유무역구역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국제 투자무역 통용 규칙의 수준에 맞춰 자유무역실험지구를 건설, 관리하여 중국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

발표자	엔타이시 투자촉진국 천신즈 국장
주 제	엔타이를 선택하여 미래로 나가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대일로 의 국가 전략 중점 건설 항구도시로, 2015년 기준 GDP 1,035억불로 중국에서 20번째 도시. ▶ 생명과학산업, 스마트제조, 자동차생산, 해양기술, 첨단 서비스업을 핵심 산업으로 하는 한중엔타이산업단지 조성

발표자	후쿠오카시상하이사무소 오키다 사토시 소장
주 제	후쿠오카시메타규슈시 글로벌 창업·고용창출 특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25의 도시 가운데 12위(2015년)이며,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된 후쿠오카시에서의 창업 지원(스타트업 비자, 법인감세, 의료제공 등) 정책 소개

발표자	새만금개발청 이범 사무관
주 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의 추진현황, 입지, 계획 및 새만금의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409km²에 달하는 국토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국책 사업 ▪ 조성사업비 : 약 22.2조원(추정-국비 109조, 지방비 0.95조, 민자 103조) ▪ 입지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시장 인접, 중국 연안 경제특구에서 최단 거리 ▶ 한중FTA시대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서의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추진 배경 및 개요를 설명하고, 새만금을 활용한 한중일 협력모델 제안 (사례: 도레이그룹의 군산공장 투자) ▶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배경 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협정(제17장 제26조)에 근거,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한 단지로써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하여 양국 정부가 해당 지역을 선정하여 산단 설립·운영·개발 및 기업 투자 증진 등 양국간 협력 추진 ▪ 중점 유치업종 : 첨단소재, 부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물류·유통, 식품·바이오 ▪ 혜택 : [재정, 세제, 금융] 입지임대료 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금융 편의 [통관] 통관 원스톱 처리 시스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인력이동] 비자발급 간소화, 외국인 고용쿼터 상한 확대 ▪ 투자 강점 : 즉시 분양, 입주 가능, 입주기반 시설 완비, 종합보세구역

	<p>지정, 풍부한 전문기술 인력, 생산인력 보유, 외국인 투자기업 장기 임대 용지 제공</p> <p>※ 한중일 협력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의 풍부한 풍속 및 일조량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유리한 입지 ▪ FTA를 통한 부품업의 Door to US/EU 가능 ▪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을 활용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중 FTA에서 체결한 양허안을 통해 Made in KOREA로 중국에 역수출 하려는 기업군 2) 한미 FTA에서 미국 양허안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군 3) 한-EU FTA에서 EU 양허안을 통해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군 ▪ 한중일 간 장점을 극대화 하여 협력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예) 한국은 양질의 원료 생산 및 공급, 중국은 유통채널 제공, 자금 투자, 일본은 기술 제공, 생산 및 수출 실행 등
--	---

발표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마오단단 전문위원
주 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한중일 산업단지 협력 방안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사전투자, 창업,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투자 인센티브(경영지원, 세금감면, 현금보조) ▶ 주변 지역 산업 클러스터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메리트에 대해 설명하고, 한중일 3국간 자본, 글로벌 네트워킹 노하우, 기술, 문화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발표자	장쑤성 우시시 인민정부 왕진젠 부시장
주 제	한중일 과학금융서비스 협력 강화로 상호 이익의 새로운 국면 창출
내 용	<p>▶ 장쑤성 우시 시에 대한 투자는 한국은 2001년보다 34배 증가, 일본은 40배 증가하였으며, 무역도 각각 18배, 6배로 급성장. 우시 시는 한국(김해, 울산)과 일본(아카시시, 사카미라하라시) 각각 도시와 자매도시관계를 통해 교류 협력을 강화</p> <p>▶ 우시시는 과학기술융합을 핵심으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를 선도로 하는 서비스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p> <p>▶ 한중일 3국 산업단지간 협력을 통한 발전과 한중일 무역확대를 중점으로 하는 상생방안 제시</p>

발표자	허베이성 상무청 투자유치추진국 안징 국장
주 제	베이징,텐진,허베이 협력 발전을 배경으로 허베이성 협력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내 용	<p>▶ 면적 18.8만 제곱킬로미터, 7,300만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허베이성은 철강, 설비, 석유화학, 방직의류, 식품, 건축자재, 의약 분야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신흥 산업으로 신소재, 생물, 전자정보, 신에너지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p> <p>▶ 허베이성은 한국, 일본과의 매우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총액 : 32.2억달러 (수출 22억달러, 수입 10.2억달러) - 주요상품 : 철강, 농산물,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 - 투자총액 : 62.9억달러(2015년기준으로 설립기업 1,200개사) ■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총액 : 22.1억달러 (수출 16.4억달러, 수입 5.7억달러) - 주요상품 : 가전제품, 전자상품, 농산물, 화학공업, 기계설비 등 - 투자총액 : 54억달러(2015년기준으로 설립기업 936개사) <p>▶ 허베이성은 베이징, 텐진과 함께 국가의 주요발전 전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베이징, 장자커우시와 공동으로 2022년 동계올림픽을 주관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에서 주목 받는 개방도시로 될 것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기 기대</p>

발표자	일본큐슈여객철도(주)상하이사무소 口塚 秀和(koizuka hidekazu) 소장
주 제	큐슈로의 관광, 외국 관광객 유치
내 용	▶ 한국, 중국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항공 노선과 편리한 현지 교통 등 큐슈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PR

발표자	공익재단법인 큐슈경제조사협회 田代 雅彦(tashiro masahiko) 상무이사
주 제	도시·농촌 교류 사업에 대하여
내 용	▶ 일본 지방 활성화 전략으로 동경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경제활동과 도시 기능의 지방 이전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 (예: 대도시 기업과의 제휴, 동경 본사의 지방이전 등)

발표자	제주대학교 박경린 교수
주 제	전기차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내 용	▶ 전세계 전기차의 출하실적 및 국가별 판매량, 그리고 차종별 판매현황과 국제기후변화대응 방안으로 한국 국가정책으로서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탄소없는 섬)의 추진, 이에 따른 한중일 정보교환, 공동 비즈니스 개발, 전기차 시장 확대 등에 대한 한중일 3국 협력 방안

발표자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김재문 회장 (㈜케이에스텍 대표이사)
주 제	스마트 제조 혁신 & 한중일 협력
내 용	<p>▶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p> <p>▶ 스마트 공장은 스마트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안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공장</p> <p>▶ 주요국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p> <p>[독일] 산업계 중심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발족, 스마트 공장 개발·확충에 2억 유로 투자</p> <p>[미국] 셰일 가스 혁명을 활용한 Reshoring 추진, 45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 건립, 첨단제조기술 전략</p> <p>[중국] 자주창신 계획을 통해 7대 전략사업 육성, 혁신기술 개발,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제조업 선도국가로서의 도약 도모</p>

	<p>[일본] 산업재흥플랜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혁신 : 첨단 설비투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p> <p>[한국] 제조업 혁신 3.0전략 :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해외 진출 촉진 등 제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p> <p>※ 한중일 협력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기술 교류 및 산학연관 협력 구심점 필요 ▪ 대중소 기업 간 상생모델 구축 ▪ 정부측의 적극적인 홍보정책과 민간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생적 융합적 협력 단체를 만들어 3국의 경제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 협력하는 관계로서의 협의체 필요
--	---

환황해지역 협력방안 한중일 공동연구

발표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호열 본부장
주 제	환황해지역 협력방안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
내 용	<p>▶ 한중일 분업현황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무역비중(19%)은 EU(55%), NAFTA(40%), ASEAN(25%)에 비해 낮은 수준 ▪ 한중일간 수출에서 역내국 부가가치 비중은 총액보다 높은 수준 ▪ 총액기준 19.1%(2014년), 무역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26.5%(2011년)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별 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증가, 일본의 부가가치는 감소 <p>▶ 환황해지역 3국 공동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이 공동연구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공동 협력과제 발굴 [전 산업군 공통] 1) 박람회, 학술대회 등을 통한 기업 교류, 기업정보 공유, 2) 역내 비관세 조치 개선 및 제도적 협력, 3) 클러스터 간 협력사업 발굴, 4) 중국의 거대 시장 진출 ▪ 한국 : 가공식품, 코스메틱, 의료기기 헬스스케어 ~ 가공식품 : 1) 3국간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2) 유기농식품, 건강식품, 유아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유통), 3) 공동 식품 및 재료 개발을 통한 현지화 필요 ~ 코스메틱: 1) 뷰티서비스와 연계한 기술, 인력 교류, 2) 제품개발 협력 ~ 의료헬스: 1) 실버 의료시장 확대, 2) 의료서비스 관련 인적 교류 ▪ 중국 : 산업단지, 전자상거래, 무역투자 원활화 ~ 제안 : 1) 3국 정부간 정책 소통 강화, 2) 3국 물류시스템 구축, 3) 전자상거래 A/S 보장협력 강화 ▪ 일본 : 신재생 에너지 ~ 제안 : 1) 비즈니스 정보 생산 및 제공, 2) 인적교류 활성화, 3) 경쟁 분야와 협력 분야 파악

한국경제

한경 미디어
뉴스룸

한국경제 A24
2016년 7월16일 토요일

한경 비타민



200개가 넘는다는
의원 특권 뒤통리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진을 7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연 3억6795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장관실 규모의 의원실을 쓴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200여개로 추정했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의원 특권의 세계를 다뤘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른다. 개인 보좌관도 없고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을 타야 보전받는다. 벨기에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에 불출석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말뿐이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엔 가능할까.



“사드 국면보다 한·중·일 경제협력이 우선”



쑹아오잉 중국 상무부 상무참사관, 기시모토 요시오 일본 규슈경제산업국장,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장,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인사가 12일 열린 한·중·일 경제협력의 한·중·일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중·한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모습.



한·중·일 대표단

한경닷컴
www.hankyung.com

15회 한·중·일 경제협력회의의
한경닷컴 중국 현지 동행 취재
3국 “경제 협력모델 구축 한 뜻”

한경닷컴은 지난 12~14일 중국 장쑤성 연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협력의 한·중·일 대표단 간담회’ 현장을 취재했다. 그곳에선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15년을 이어온 끈끈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힘이 있었다.

한·중·일 경제협력회의는 서해를 둘러싼 한·중·일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 증진 등 동북아시아 3국의 경제교류 확대를 목표로 2001년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았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선 정부측 인사 발언에 눈길이 쏠렸다. 그러나 한·중 양국 대표의 3국 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중·일 대표단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

역조사실장은 13일 연청시 영빈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상호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신성장산업으로의 경제협력 분야 확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 등 경제협력 수단과 방법의 다각화를 3국 간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쑹아오잉 중국 상무부 아자사 상무참사관도 인사말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서해 인접지역 경제협력과 발전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3국 간 다각적 지역협력 모델 구축에 시너지를 내고 윈윈(win-win)

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경복 성주를 사드 부지로 확정 발표한 13일 오후 3시에 회의가 열렸으나 사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중·일 회의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3국 간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은 “사드 배치 같은 불안 요소에도 3국이 쌓아온 긴밀한 협력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며 “탄탄한 경제협력 관계가 정치적·외교적 경색 국면을 풀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복 8~10차선의 넓은 도로가 인상적인 연청은 잘 정비된 계획도시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일 합작 산업협력단지가 이곳에 조성됐다. ‘중·한·일 경제협력’이라는 한국어 표지판이 거리 곳곳에 걸렸다. 연청은 공항, 항구, 철도의 입체적 교통·물류 인프라를 실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중심도시로 발전한

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연청산업원구에 있는 동평위예다 기아자동차 제3공장은 한·중 합작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연간 생산·판매량이 61만5000대에 달했다. 전체 공정이 자동화돼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12일 공장을 방문한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거의 모든 작업을 로봇이 하고 있다. 인건비 위주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국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녹색·혁신과 개방·융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본회의와 한·중·일 대표단의 산업시찰을 비롯해 3국 국장회의,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산업단지·특구 협력포럼, 한·중·일 산·학·관 협력 대확충포럼, 중·한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한국 90여명, 중국 170여명, 일본 60여명 등 3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연청·김봉규 한경닷컴기자 ktk9@hankyung.com

한국경제

한중일 강점 살린 '역내분업 새 모델' 만든다
중국 옌청서 '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3국 공동연구 결과발표 "역내 경제협력 강화"



지난 13일 중국 옌청에서 열린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장면. / 한일경제협회 제공

[김봉구 기자] 한·중·일이 각자의 강점 분야를 살려 역내 경제교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국간 경쟁 대신 분업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이르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청사진이다.

지난 12~14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황해 지역 협력방안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동아시아 3국의 경제교류 확대를 목표로 2001년 시작돼 15년째 이어온 환황해회의를 매개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한중일 경제협력단계로 진입하자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경닷컴은 이번 회의를 현지 동행 취재했다.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은 13일 옌청시 영빈관에서 열린 환황해회의 본회의에 발표자로 나서 “3국 협력의 경제협력 거점지역인 환황해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윈윈(win-win)하는 공동과제를 발굴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반을 만들어나간다는 취지”라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일경제협회, 일본 규슈경제조사협회,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1년 넘게 공동연구를 진행해

△한국 식품·코스메틱(화장품)·의료헬스 △일본 신재생에너지 △중국 산업단지·전자상거래 등 산업협력 플랫폼을 각각 비교우위를 가진 중점육성 분야로 제시했다.

임 본부장은 “정량 데이터 분석과 정성 분석, 10여 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며 “3국 기업간 매칭(matching), 기술표준 획득, 현지화 작업, 안전성 확보 등 시장 확대 노력을 통해 한중일 산업 내 분업의 잠재력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췄다. 서해를 둘러싼 지역 특성에 알맞은 계획이라는 평. 한국(전남)과 일본(사가현·나가사키현), 중국(장쑤성) 해상에 각각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 환황해지역에 경제기술개발구 58개, 국가급 개발구 11개, 첨단기술개발구 40개가 몰려있다. 이처럼 동부 연안 산업단지가 활성화된 점에 착안해 산업단지와 전자상거래, 무역투자 등 협력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지난 13일 중국 옌청에서 열린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인사말 하는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왼쪽)과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한일경제협회 제공

공동연구 보고서는 한중일이 환황해지역 공동으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3국 산·학·관이 참여하는 환황해회의를 협의 채널로 활용해 비관세 조치 등 실질적인 역내협력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지역 상품박람회 및 투자·무역 정상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이는 신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시장을 겨냥한 수준 높은 3국간 경제협력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제도적 인프라와 플랫폼을 토대로 한 지역 블록 경제통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새 협력모델이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장도 상호개방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경제협력 강화, 한중일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의 가능성을 화두로 던졌다.

같은 날 앞서 열린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인사말을 맡은 이중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한중일이 함께 역내 인프라를 튼튼하게 정비함과 동시에 서로의 비교우위를 살려나가는 협력방안 출이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동아시아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칭=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한국경제

[현장+] '한중 합작산업 전진기지' 엔청을 가다 12~14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기아차 등 1000여개 한국 기업 진출

[김봉구 기자] 이달 12~14일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열린 중국 장쑤성 엔청시는 ‘중·한염성(엔청)산업원구’가 들어선 곳이다. 한 눈에 봐도 잘 정비된 계획도시였다. 한중 합작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역동적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2년 전 겨울 찾은 베이징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는 방진마스크부터 지급받았다. 엔청은 공기가 깨끗했다. ‘동방의 습지도시’를 브랜드로 내세울 만했다. 시내 곳곳에서 보이는 물가에 드리운 버드나무와 온난대 기후 식물들이 남방의 정취를 물씬 풍겼다.

작은 공항에 내려 회의가 열리는 엔청시 영빈관으로 향했다. 왕복 8~10차선의 넓은 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합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다. 거리에는 ‘중국 제4대 중외합작단지 중한염성산업원구’를 비롯해 ‘안전제일’ 따위의 문구가 적힌 한글 표지판이 심심찮게 보였다.

이동 중에는 “엔청은 중한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 공항, 항구, 철도의 입체적 교통·물류인프라를 활용해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찬 안내원의 소개가 귀를 파고들었다.



지난 12일 엔청의 동평위에다기아차 제3공장을 찾은 한국대표단. / 한일경제협회 제공

숙소에 짐을 푼 한국 대표단은 곧장 산업시찰에 나섰다. 옌청산업원구에 있는 동펑위예다(동풍열달)기아 자동차 유한회사는 한중 합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작년 연간 생산·판매량 61만5000대, 내년 매출은 100만대로 잡고 있다. 시내 여기저기서 K3, K5 등 큼직큼직한 기아차 광고판이 눈에 띄었다.

이날 대표단이 동펑위예다 기아차제3공장을 찾은 시각은 오후 3시경. 하지만 공장내부는 어두웠다. 조명은 작업구역을 제외한 통로만 비췄다. 전체공정이 자동화된 탓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작업자가 적어서 조명이 필요 없으니…”라고 귀띔했다. 대신 차체를 조립하는 로봇손의 커다란 기계음이 공장을 가득 채웠다.

공정 진행을 알리는 전광판 숫자와 완료를 알리는 신호음이 줄기차게 들렸다. 차량 완성 단계의 일부 구역에서만 현지 생산직 직원들이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20대 젊은이인 직원들은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약 70만~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표단은 “인건비 위주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존 중국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지 안내원에게 이것저것 현황을 캐묻는 국내 기업 관계자들도 여럿이었다. 기술과 임금수준에서 동남아시아와 국내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중국의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서 방문한 중한산업단지기획전시관은 옌청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요약해 보여줬다. 옌청은 작년 7월 중한염성산업단지 핵심구로 확정됐다. 산업도시로 ‘기지개를 켜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수년 전 이곳을 찾은 국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옌청에 공항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천지 개벽이란 말이 딱 맞는다”고 했다.

전시관의 안내 동영상은 옌청이 ‘한중 산업협력의 모범’임을 되풀이 강조했다. 우수한 투자 환경으로 산업원구에 1000여개의 한국 입주 기업을 유치했으며 투자 총액 50억 달러, 연간 매출 1000억 위안을 달성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80분 거리로 멀지 않은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지난 13일 옌청시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행사장 모습. / 한일경제협회 제공

실제로 이튿날(13일) 진행된 ‘한중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도 활기가 넘쳤다. 영빈관 구룡홀에 마련된 27개 테이블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행사장은 공식 일정이 진행되는 3시간 내내 국내기업들과 손잡기를 원하는 중국 바이어들이 북적거렸다. 주최측은 국내 27개 기업과 중국 70여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IoT 웨어러블 기기를 취급하는 유니블(UNIBLE) 권길후 대표는 상담회 자리에서 “개별 접촉보다는 이런 자리가 좋은 기회가 된다. 혈당 체크와 만보기 기능을 겸한 밴드형 스마트워치의 유통업체를 찾고 있는데 바이어들 반응이 꽤 좋아 현지 진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코코 착용공기정화기’란 제품을 직접 착용해 현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끈 안동식 맥스웨이브 대표(공학박사)는 “직접 개발했다. 위생적이고 입을 가리지 않아 운동할 때 편하다”면서 “한 시간 동안 7~8개 현지 업체가 다녀갔다. 중국의 공기 문제가 심각해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고 노트북으로 동영상 등을 틀어주며 제품을 소개하는 등 행사장은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대기석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업체간 사전 접촉이 없었으나 현장에서 관심을 보인 끝에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13일 본회의에서 개최지 인사를 맡은 주커장 중국공산당 옌청시위원회 서기는 ‘한국과 일본의 친구들’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즈니스를 독려했다. 그는 “옌청은 《수호지》가 탄생한 고장으로 자원과 이야기가 풍부한 곳이다. 국가 10대 발전도시로 선정된 만큼 적극적 개방협력으로 한일 친구들과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서기의 말처럼 옌청은 입주 한국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성’ 등 한국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귀국길에 오른 대표단 관계자들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도시’란 옌청시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으로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옌청=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한국경제

"한중일 손잡고 '동아시아판 NAFTA' 만든다"

24일 新아시아산학관협력포럼 개최

오는 7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24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2016 신아시아산학관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한경 DB

[김봉구 기자] “기로에 선 우리 경제를 위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필요합니다. EU(유럽연합)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공동의 안정된 시장을 만들고, 역내분업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사진)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신(新)아시아산학관협력포럼’에 축사자로 나서 “한중일 3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산업 내 분업’ 주제의 이번 포럼은 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산학연합회 5개 단체가 주최 및 주관했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후원했다.

앞서 이승률 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 이사장은 “아시아 시대를 맞아 역내 중요 행위자인 한중일 3국이 대립과 분열에서 벗어나 기초적인 경제공동체의 틀을 갖춰가는 것이 ‘원아시아’ 구축의 첩경”이라고 강조 했다. 서동석 한국산학연합회장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다”고 축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식품·코스메틱·의료헬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중국은 산업플랫폼을 중점분야로 특화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정곤 대외경제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한중일의 역내 무역 총액 기준 비중은 감소했지만 부가가치 측면은 증가하고 있다. 또 한중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이 제도적 인프라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역블록의 경제통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가치사슬(밸류체인) 내 위계가 올라가면서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신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준 높은 협력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는 “역내 산업단지,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합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이 한 사례가 될텐데 얼마나 개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상호스킨십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3국간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친화형 스마트카 2차전지 동향과 한중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이 분야 산업과 시장이 레드오션인 데다 한중일 3국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마트제조 혁신과 한중일 협력(김재문 스마트제조혁신협회장)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필요성 및 협력방안(김상목 KOTRA 글로벌파트너실장)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와 한중일 협력(이범 새만금개발청 사무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오는 7월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진행되는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사전행사격으로 개최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분업 논의에 앞서 국내 각 분야 컨센서스(합의)를 모으고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중일 경제협력의 장'...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세종=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제15회 환황해 제·기술교류회의'가 12일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서 열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밝혔다.

이들간 열리는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국 서남해 지역 11개 시·도, 중국 환황해 지역 3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4성(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수), 일본 규슈지역 7현(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3정령시(후쿠오카, 기타큐슈, 구마모토)의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01년 1월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처음 개최된 후 3국 각 도시에서 회의는 돌아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규슈경제산업국이 공동주최하며 한중일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이란 주제로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한중 기업 비즈니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는 신흥국의 성장둔화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금융서비스 협력 강화, 전기차 산업 발전방향 등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했고 환황해 지역발전과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3국 정부대표는 가공식품, 코스메틱, 의료 헬스케어 분야(한국), 산업단지, 전자상거래, 무역투자분야(중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일본) 등 3국 공동연구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iamlee@yna.co.kr

산업부,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3개국이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를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한·중·일 3개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류회는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을 주제로 포럼,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했다.

교류회 본회의에선 과학기술·금융서비스 협력 강화, 전기차 산업 발전동향 등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발굴 등을 논의했다. 환황해 비즈니스포럼에선 3개국 전문가와 관련 기업인이 에너지환경과 첨단제조, 국제전자상거래·유통 등 분야에서 한·중·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한·중·일 간 인재양성과 인력교류를 위한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 총장 포럼도 진행했다.

특히 3개국이 가공식품, 의료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등 공동연구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또 한국 28개사, 중국 70여개사가 참여해 두 나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한·중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었다. 더불어 환황해 지역 발전과 경제교류 확대 공로로 이승율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서동석 한국산학연합회 회장 등이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한·중·일은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17조달러), 교역량의 18%(6조 1000억원), 세계 인구의 20%(15억명)를 차지하고 있다.

박병립기자 riby@

머니투데이

한중일, 전기차·금융서비스 경제협력모델 찾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확대

한중일, 전기차·금융서비스 경제협력모델 찾는다

한국·중국·일본이 전기차 산업 발전방향, 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경제산업국과 공동으로 '제 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 지역 3시·4성, 일본 큐슈(九州)지역 7현·3정령시 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삼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왔다. 실제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은 첫 회의가 개최된 2001년 1638억달러에서 2015년 5687억달러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삼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을 주제로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환황해 산학관협력 대학총장포럼 △한중 기업 비즈니스상담회 등 다양한 경제행사를 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신흥국의 성장둔화와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삼국은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17조 달러), 교역량의 18%(6조1000억 달러), 세계인구의 20%(15억 명)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금융서비스 협력 강화, 전기차 산업 발전방향 등 새로운 경제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환황해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한 경제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

환황해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삼국 전문가와 관련기업인 등이 참여해 에너지환경과 첨단제조, 국제전자상거래·유통 등 분야에서 한중일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에서는 삼국 지방정부와 기업인들이 삼국의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 투자유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며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 포럼에서는 한중일 간 인재양성과 인력교류 협력을 논의한다.

한중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기업 28개사, 중국기업 70여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중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했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 3국 정부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방안에 대한 3국 공동연구*실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삼국 공동연구분야는 가공식품, 코스메틱, 의료헬스케어 분야(이상 한국) 산업단지, 전자상거래, 무역투자 분야(이상 중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일본)다.

한국의 한일경제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일본의 규슈경제조사협회가 연구를 수행한다.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2~13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삼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을 주제로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환황해 산업단지 특구협력포럼, 환황해 산학관 협력 대학총장포럼, 한중 기업 비즈니스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흥국의 성장둔화와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17조 달러)와 교역량의 18%(6조1000억 달러), 세계인구의 20%(15억 명)를 차지하고 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에서는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장젠궈(?建?) 칭다오국제경제협력구관리위원회 장젠궈부주임, 키요모토철공주식회사, 서동석 한국산학연합회 회장, 마밍룽(?明?) 장쑤성 상무청 청장,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 등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한 노고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한·중·일 ‘환황해 3국’, 中 염성서 경제·기술 교류

아시아투데이 홍정원 기자 =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2일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한국 서남해 지역 11개 시·도, 중국 환황해 지역 3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4성(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수), 일본 규슈지역 7현(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3정령시(후쿠오카, 기타큐슈, 구마모토)의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2001년 1월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처음 개최된 후 3국 각 도시에서 회의는 돌아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규슈경제산업국이 공동주최하며 한·중·일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이란 주제로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한중 기업 비즈니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금융서비스 협력강화, 전기차 산업 발전방향 등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했고 환황해 지역발전과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3국 정부대표는 가공식품, 코스메틱, 의료 헬스케어 분야(한국), 산업단지, 전자상거래, 무역투자 분야(중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일본) 등 3국 공동연구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는 신흥국 성장둔화와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짧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zizou@asiatoday.co.kr

[기업 성장의 메카 中염성]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황해지역 경제협력의 중요 플랫폼’



13일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서 제15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열렸다. / 사진 = 류두환 기자

염성(중국)/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의 협력시스템으로, 황해지역 경제협력발전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야오밍 중국 상무부 아주사 상무참찬은 13일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에서 “3국이 한곳에 모여 친환경혁신 및 개방·융합을 주제로 발전계획을 함께 토론하는 것은 3국 협력에 대한 공동인식과 성장동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한국, 중국, 일본) 관계자들이 모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등의 협력을 갖는 자리로, 12~13일 이틀간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을 주제로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환황해 산학관협력 대학총장포럼 △한중 기업 비즈니스상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와 함께 진행된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에서는 3국의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 투자유치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송지용 중국 상무부 아시아청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일산업단지 협력강화를 위한 조건 △산업단지협력을 통한 한중일 경제무역발전 추진 △한중일산업단지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파트너”라며 “3국이 가진 장점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 서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이번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일 3국 대표들의 각국 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염성시의 주소천 부시장은 염성중환산업단지의 현황 및 투자여건 등을 설명했다.

주소천 부시장은 “2014년 한중 양국 정상에 ‘한중산업단지 공동건설’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고, 지난해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면서 염성시는 한중산업단지 지방협력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1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염성시에 투자한 액수가 70억 달러에 달한다”며 1개단지와 3개구역을 중심으로 10대 기능 플랫폼을 갖춘 염성중환산업단지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 측 대표인 이범 한국새만금개발청 사무관도 새만금사업의 개요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며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위치적으로 군산항과 가까이 있고, 주변에 발달된 산업단지들로 인해 중국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는 오쿠다 사토시 일본후쿠오카시 상해사무소장과 마오단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전문위원, 장준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역관리위원회 부처장, 진신자 중국 연대시 투자추진국 국장 등이 각 지역의 산업단지에 관해 발표했다.

©"짧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hlee@asiatoday.co.kr

[기업 성장의 메카 中염성] 한중일 도시·자동차·인터넷… ‘스마트’ 하게 묶는다



염성(중국)/아시아투데이 김민수 기자 = 한국이 중국·일본과 중국 강소성 염성에서 모여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지자동차 협력, 디지털 싱글 마켓 도입 등의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3국 간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어 세계적인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다.

13일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서 열린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는 한중일 3국의 각 산업전문가들과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염성시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황해 비즈니스포럼’에서는 한중일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녹색 경제’와 ‘혁신 성장’을 주제로 에너지환경과 첨단제조, 국제전자상거래, 유통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환황해 비즈니스포럼은 에너지환경과 첨단제조, 국제 전자상거래와 물류·유통 등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 중 가장 처음 단상에 오른 황유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국사업소 소장은 청도(靑島) 한중협력 생태스마트 도시 건설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3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영역에서의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청도에 스마트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한중합자기업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기초설계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 소장은 “한국은 세계 4대 전자상품 제조국이고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기준을 정하는 주도국 중 하나”라며 “한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건설모델을 해외로 보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도로·상수도·공원·학교·병원·주택 등 도시공간의 시설에 센서와 유무선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설치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2009년과 2013년에 제1,2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세우고 스마트시티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계획을 세우고 있다.

황 소장은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춰 스마트시티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경기 16곳·충청 18곳·전라 5곳·경상 9곳·강원 2곳 등 전국적인 스마트시티 도입을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한중일 전기자동차 시장의 협력 방안도 제기됐다.

윤성훈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교수는 환경친화형 스마트카 이차 전지의 동향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한중일 3국이 스마트카 전지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모바일과 IT에 주로 사용되던 리튬이차전지는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시장에 도입,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모바일·IT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세 가지 분야에서 연평균 14.1% 성장할 전망이다. 리튬이차전지는 현재 가장 널리 상용화된 이차 전지다. 국내에선 LG화학과 삼성SDI가 해외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면서 2011년부터 한국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 교수는 전기자동차시장이 향후 가정용 전력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기차배터리 전력을 가정과 연결시키는 기술을 장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버스 전지를 재활용하는 협력사업도 제안했다. 수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전기버스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버스 전지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점 커지는 한중일 인터넷 교류에 대한 방향성도 논의했다. 포럼의 마지막 주자인 김상목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 실장은 “한중일 3국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자유롭게 예약·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싱글마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3국간 전자 상거래 운영시스템과 결제 및 물류시스템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중국이 5626억달러로 1위, 일본이 793억달러로 4위, 한국이 367억달러로 7위 규모다.

김 실장은 “미국과 EU가 추진하는 디지털 시장 단일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서 세계 2대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싱글마켓을 도입하면 여행·의류·화장품·IT·전자기기 중심의 쇼핑에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전자금융으로까지 활용성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ispirit@asiatoday.co.kr

한중일,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

12~13일 중국서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한·중·일 3개국 정부가 중국에 모여 환황해 지역의 기술교류 촉진과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황해 지역은 중국 랴오닝성에서 한반도와 규슈까지를 연결짓는 지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공동 주최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 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신흥국의 성장 둔화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동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회의 기간중 열리는 환황해 비즈니스포럼에서는 3국 전문가와 관련기업인들이 참여해 에너지환경과 첨단 제조, 국제전자상거래·유통 등 분야에서 한중일 협력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환황해 산업단지·특구 협력 행사를 통해서도 3국 지방정부와 기업인들이 3국의 산업단지 건설과 운영, 투자유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게 된다.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 포럼에서는 한중일 간 인재양성과 인력교류 협력을 논의가 이뤄진다.

또 본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정부는 과학기술·금융서비스 협력 강화, 전기차 산업 발전방향 등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대에 경제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대상 시상도 이뤄진다.

법인·개인부문에서는 이승율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장젠궈 중국 칭다오국제경제협력구관리위원회 부주임, 일본 키요모토철공주식회사 등이 수상한다. 지방공공단체·경제단체부문은 한국에서 서동석 한국 산학연합회 회장, 중국은 마밍룽 장쑤성 상무청장, 일본은 공익재단법인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간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 중에 3국 정부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방안에 대한 3국 공동연구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中 강소성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12일(현지시각)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서 개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틀간 열리는 회의는 한국 서남해 11개 시·도, 중국 환황해 3시(베이징·톈진·상하이) 4성(랴오닝·허베이·산둥·장수), 일본 규슈지역 7현(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 3정령시(후쿠오카·기타큐슈·구마모토) 간 무역·투자와 산업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01년 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된 후 3국 각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정부·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또 ‘한중일 녹색경제와 혁신성장 및 개방과 융합’을 주제로 비즈니스포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한중기업 비즈니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는 신흥국 성장 둔화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금융서비스 협력 강화, 전기차 산업 발전방향 등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또 각국 정부 대표단은 가공식품, 코스메틱, 의료·헬스케어(한국), 산업단지, 전자상거래, 무역투자(중국), 신재생에너지(일본) 등 3국 공동연구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한중일 환황해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7.12~13, 중국 옌청시) -

□ 7.12~1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열렸다.

<제1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7.12(화)~7.13(수), 중국 옌청시 영빈관

○ 주최/주관 : (한국)산업통상자원부/한일경제협회, (中)상무부 아주사,

(일본) 경산성 규슈경제산업국/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 주요내용 :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 호나황해 산학관 협력 대학총장포럼, 한중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등

○ 참석자 :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송야오밍 중국 상무부 아주사 상무참찬, 기시모토 요시오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장,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아소 유타카 일본 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회장, 3국 지자체·경제단체·대학·기업인 등 300여명

○ 이 회의에는 한중일 삼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첨부파일

한글파일0713 (14일조건) 동북아통상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hwp

2016.07.13 산업통상자원부

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 交流会议在盐举行

朱克江 宋耀明 王荣平等出席

本报讯（记者 黄云雁）7月12日至13日，由国家商务部、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九州经济联合会、韩国产业通商资源部共同主办，省商务厅和我市承办的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盐举行。13日下午，市委马卫、市人大常委会主任朱品江出席泛黄海会议全体会议并致辞，国家商务部亚洲司商务参赞宋耀明、市长王荣平、日本九州经济联合会会长藤生泰、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局长岸本晋生、韩国产业通商资源部贸易调查室室长曹永泰等出席。

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是一国间唯一由政府、经济团体、企业、大学和科研机构共同参与的次区域合作机制，旨在加强三互泛黄海区域内贸易、投资、技术等各领域交流与合作。今年是泛黄海合作机制成立15周年，中日韩三国政府、经济界和学界300多名代表齐聚盐城，围绕“绿色创新与开放融合”主题，共同参加了泛黄海会议全体会议、产学研大学校长论坛、泛黄海商务论坛、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商务洽谈会等系列会议，并分组进行产业考察，探讨三国共育实现绿色经济与创新发展的新模式，进一步密切三互地方经贸合作关系，全面推进泛黄海区域经济融合发展。

朱克江代表市委、市政府向大会公开表示祝贺，向各位嘉宾表示欢迎，并介绍了盐城经济社会发展及对日韩经贸合作情况。他说，盐城位于中国沿海中部的黄海之滨，与韩区、日本隔海相望，是中国“一带一路”和长江经济带连接点及长江经济带重要节点，全方位加强开放融合，是盐城新一轮发展的战略取向和鲜明特色。作为中韩两国政府确定的中韩产业园区地方合作城市，盐城对外开放合作正在向更高水平、更深层次迈进。本次大会以绿色创新与开放融合为主题，充分体现了积极应对时代变迁和社会发展需要的共同愿景。我们将认真落实此次会议成果，围绕加快中韩盐城产业园区建设，更加密切与韩国、日本在汽车及新能源汽车、高端纺织、新材料等方面的合作，努力打造制造业合作升级版。更应密切与韩、日在节能环保、环保科技、资源利用等方面积极开展合作空间，更加密切贸易、科技等领域合作，加快科技创新、人才培养、平台建设，致力打造“一路”建设先行区和泛黄海区域开发合作门户基地。

国家商务部、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和韩国产业通商资源部分别代表中日韩三方致辞。宋耀明说，加强泛黄海合作是推进中日韩乃至东亚地区经济发展，形成



图为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全体会议现场。

本报记者 金胜春 孙海鹏 摄

作的基础上，以创新合作为目标，共同打造中日韩经贸合作新引擎，以机制建设为基础，树立多层次次区域合作的先行典范；以联合研发成果为导向，加快推动重点领域示范项目建设；以产业园区为载体，积极构建泛黄海地区产业合作新平台，推动三国间相互投资、培育三国企业共同参与的优势产业集群，促进区域产业合作向高层次、纵深化方向发展。岸本晋生表示，未来中日韩领导人会议及经贸部长会议重启以来，各领域合作持续升温，三国合作发展迎来新的良好契机。希望三方以此次会议召开为新起点，进一步加强务实合作，实现水产业、医药、互联网等产业

泛黄海经济圈日渐成熟，合作水平不断提升。应该通过相互开放，扩大自由贸易，加强新能源汽车、生物技术和可再生能源、跨境贸易等领域内合作，创新合作手段，培育新兴产业，实现共同繁荣。

全体会议上，泛黄海商务论坛、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商务洽谈会、大学校长论坛等先后作总结报告，中日韩三方代表向大会发表了一系列合作倡议。日本朝日新闻作为下面会议主办城市作情况介绍。会议还向为区域经济合作作出突出贡献的机构和个人授予“2016年泛黄海经济交

泛黄海中日韩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举行

王荣平出席开幕式并致辞

本报讯 (记者 韩宝贵)7月13日上午,由商务部亚洲司、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韩国产业通商资源部共同主办的第10届泛黄海中日韩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在盐城师范学院拉开帷幕。来自中、日、韩3国22所大学的校长、专家、学者共300余人参加论坛。市长王荣平出席开幕式并致辞,省教育厅副厅长洪流,山东大学校长张荣,中科院院士、南京工业大学校长黄维,副市长葛启发等出席。

作为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的重要品牌活动之一,本届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主题是“产学研合作与创新创业”,张荣作主题演讲,南京工业大学、南京师范大学和日本福冈大学、日本九州工业大学、韩国仁川大学、韩国全北大学等6所大学校长作报告,日本长崎大学等国内外10所高校在分组论坛上进行交流。参加论坛的大学校长、专家、学者们一致认为,泛黄海地区应加强人才培养、科学研究等方面的合作和大学之间的联系,密切三国间产、学、官协作关系,积极探索产学研合作的新机制,进一步促进泛黄海区域经济技术合作。

王荣平在致辞中对海内外嘉宾的到来表示欢迎。在简要介绍盐城经济社会发展情况后,他说,泛黄海中日韩地区是世界经济增长速度最快的地区之一,聚集了许多著名的高校、企业和科研机构,拥有雄厚的人才优势和研发实力。三国地理位置相近,产业结构互补,在人才培养、科学研究等领域有着良好的合作前景,尤其是泛黄海地区大学间的合作,对促进三国人才培养、科技创新、经济繁荣和社会进步具有重要的推动作用。

王荣平说,盐城素有崇文重教的历史传统,始终坚持把创新驱动和人才强市战略作为推动经济社会发展的重要战略之一,研究出台了一系列政策措施推动大学、企业、政府之间深化合作。此次校长论坛,将进一步密切盐城与泛黄海地区大学之间的联系以及国际学术交流和合作。我市将以此为契机,学习借鉴国内外高校在人才培养等方面的丰富经验和现实成果,积极探索政产学研企合作的有效途径,充分发挥政府主导作用,在人才引进、平台建设、政策引导、成果转化、环境优化等方面下更大功夫,推动与国内外高等院校、科研院所合作交流,建设产学研联合体,实施产学研合作项目,努力把盐城建设成为国家创新型城市。

朱克江会见韩国代表团客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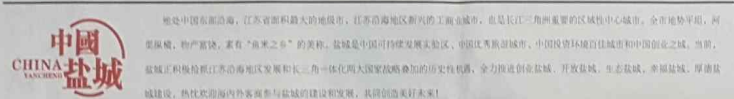
本报讯 (记者 刘志红)7月13日下午,市委书记、市人大常委会主任朱克江会见来盐参加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的韩国产业通商资源部贸易调查室室长曹永泰一行。

朱克江对曹永泰一行来盐考察访问表示欢迎。他说,泛黄海经济技术交流会议作为中日韩三国间次区域合作机制,是推动泛黄海地区经济合作发展的重要平台。对韩交流合作是盐城扩大对外开放的重要组成部分,累计有近千家韩资企业落户盐城,2万多名韩国友人常年在这里工作生活。中韩自贸协定明确盐城为中韩产业园地方合作城市以来,我们抢抓战略机遇,与韩国产业通商资源部、新万金开发厅等开展全方位合作,中韩盐城产业园区建设取得明显成效,新能源汽车、电子信息、大数据、健康等一批新兴产业拔地而起、形成规模。此次泛黄海经济技术交流会议在盐城举行,必将有力推动盐韩经贸合作特别是中韩盐城产业园区建设迈向更高水平。希望

代表团成员在盐城多走一走、看一看,实地感受这里的发展活力和宜居宜业环境,推动韩国企业与我们在汽车及新能源汽车、大数据、新材料等方面展开紧密合作。我们将积极支持盐城优势产能走出去,到韩国新万金经济区谋求发展,促进双方合作交流不断深化,实现共赢。

曹永泰说,韩国代表团此次来盐参加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实地参观访问了中韩盐城产业园区和东风悦达起亚汽车公司等企业,对盐城浓厚的韩国文化氛围、良好的商务投资环境十分赞叹。我们将积极推动建立泛黄海中日韩企业数据库,广泛宣传推介盐城,鼓励更多韩国企业来盐投资,不断深化双方在各领域的友好交流,共同创造互利合作新的成果。

市领导潘道津、周绍良,国家级盐城经济技术开发区和市有关部门负责同志等参加会见。



중국 동북 연변에 위치한 중국 동북성에서 만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해로 편액지역의 성을 삼강성 도시이다. 잘강 삼강성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음이다. 이 성에는 지세가 험준하고, 수로가 가장도 험준하며 있으며, 물산이 풍부하여 '여의지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명청은 중국의 지가 가장 중요 삼강지역, 중국 중국 관문지역, 중국 무역항 10대 도시 및 국경 접합점 삼강지역이다. 현재, 연변은 정부 연변지역의 발전과 잘강 삼강지역의 일대화라는 2대 국가 전략의 신시대 호기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발전, 개원발전, 개성발전, 협력발전, 무역발전의 건설 사업,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의하에 건설의 건설 사업 사업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盐城，是一座让人打开心扉的城市，也是一片资源富集、积淀深厚的人文沃土。近年来，盐城大力培育和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陆续推出《酒陶沃土》、《盐德同善》。奋发向上的城市精神已成为引领和推动盐城发展的强大正能量，不断焕发了著名的“盐城现象”，也是全省唯一一个荣获全国新一轮社会管理综合治理优秀奖的城市。

塩城地区はかつて開かれた都市で、道徳・善行を尊厳して、治世文明教化の道徳を奨励する文化政策を数回実施した。近年、塩城は社会主義市場経済に全力で実践し、法に及び都市を治める文明理念を骨幹として推進し、「道徳の義士道徳を尊厳する」とともに、道徳・善行を尊厳し、實踐して努力する都市精神が塩城の発展を引導して推進する強いプラスエネルギーになる。善人善行は何度も「塩城で観察する」のとはよく聞かれる。塩城は全省唯一の全国社会管理综合治理先進市を受賞した都市でもある。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신은 자비함과 도덕적 의무를 추구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을 참으로 신의 뜻으로 행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신은 자비함과 도덕적 의무를 추구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을 참으로 신의 뜻으로 행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최이러는 화려한 도시의 명함으로 되었습니다.

创业开放生态幸福厚德的美丽盐城欢迎您



绿色创新与开放融合

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

盐城晚报
2016年7月14日 星期四

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盐举行

朱克江宋耀明王荣平等出席

盐城晚报讯 7月12日至13日,由商务部、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九州经济联合会、韩国产业通商资源部共同主办、省商务厅和盐城市承办的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盐举行。13日下午,市委副书记、市人大常委、会主任朱克江出席泛黄海会议全体会议并致辞,国家商务参赞亚洲司参赞参赞米耀明、市长王荣平、日本九州经济联合会会长藤生孝、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局长岩本吉生、韩国产业通商资源部贸易调查室室长曹永泰等出席。

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是三国间唯一由政府、经济团体、企业、大学和科研机构共同参与和次区域合作机制,旨在加强三国泛黄海区域内贸易、投资、技术等各领域交流与合作。今年是泛黄海合作机制成立15周年,中日韩三国政府、经济界和学界300多名代表齐聚盐城,围绕“绿色创新与开放融合”主题,共同参加了泛黄海会议全体会议、产官学宫大学校长论坛、泛黄海

海商务论坛、产业园区、地区合作论坛、商务洽谈会等一系列会议,并分论坛进行产业考察、探讨三国共同实现绿色经济与创新发展的合作模式,进一步密切三国地方间经贸合作关系,全面推进泛黄海区域经济发展。

朱克江代表市委、市政府向大会召开表示祝贺,向各位嘉宾表示欢迎,并介绍了盐城经济社会发展及对外贸易合作情况。他请,盐城位于中国沿海中部,黄海之滨,与韩国、日本隔海相望,是“中国一带一路”和长江经济带连接点及长三角城市群重要成员。全方位加强开放融合,是盐城新一轮发展的战略取向和鲜明特色。作为中韩两国政府商定的中韩“产业园地方合作城市”,盐城对外开放合作正在向更高水平、更深层次迈进。本次大会以绿色创新与开放融合为主题,充分体现了开放应时代变迁和注会发展需要的共同愿望。我们将认真落实此次会议成果,更加密切与韩盐城产业园建设,更加密切与韩国、日本在汽车及节能环保汽车、

高端纺织、新材料等方面的合作,努力打造制造业合作升级版。更加密切生态领域合作,在节能环保、环保科技、资源利用等方面积极探索合作空间。更加密切贸易、科教等领域合作,加快科技创新、人才培养、平台建设,致力打造“一带一路”建设先行基地和泛黄海区域开放合作“门户基地”。

国家商务部、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和韩国产业通商资源部分别代表中日韩三方致辞。米耀明说,加强泛黄海合作是推动中日韩乃至东亚地区经济发展,形成互利互惠合作新格局的客观需要。我们应当在美国既有合作的基础上,以创新合作为引领,共同打造中日韩经贸合作新引擎;以机制建设为基础,列多双边次区域合作的先行地区;以联合研究成果为导向,加快推进重点领域示范项目合作;以产业园区为载体,积极构建泛黄海地区产业合作新平台,推动三国间相互投资、贸易、产业共同参与的“泛黄海”产业集群,促进区域产业合作向高水平、纵深化方向发展。韩本

记者 黄云鹰

泛黄海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召开 中日韩合力推进园区合作

盐城晚报讯 昨天上午,泛黄海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在我市迎宾馆召开,中日韩三方地方政府、产业园区、战略特区、企业代表对各自目的园区进行推介,会议以凝聚合力、创新发展为主题,三方共享产业园区建设、运营、引进政策及经验,探讨建立产业园区合作平台,促进区域内资源合理配置,推动形成规模产业集群,深化三国地方务实经贸合作。

会上,我市作为中方代表首先发言,向中韩(盐城)产业园进行了推介。盐城晚报记者了解到,目前中韩盐城产业园已落户现代起亚、隆巴斯、亿丰电子、现代工程、新都银行等近10家韩资企业,总投资70多亿美元。东风悦达起亚汽车公司累计销售乘用车突破400万台,成为现代汽车集团全球制造业兼营回报率最高的工厂。目前,盐城与韩国的合作已经从单体项目向产业链延伸,从汽车产业拓展到节能环保、新能源、电子信息等新兴产业,从单一的一工业领域延伸到新兴产业、现代农业、文化领域、旅游观光以及现代物流等诸多领域。

建设,致力于打造中韩盐城产业园建设国际合作的典范园区,使之成为江苏呼应“中国一带一路”战略、实施的重要支点和平台、江苏乃至中国中韩经贸往来的重要通道和基础,影响和促进江苏沿海开放发展的重要窗口和纽带。

盐城与韩国蔚山、大邱、庆北蔚山已经结为友好交流城市。昨天,大邱、庆北蔚山两城市市长、市长率团也参加了会议。去年3月,盐城与韩国大邱成为了紧密城市,此后便开始了很多方面的交流。“韩建怡说,他期待,以韩建怡为纽带,以韩建怡为中心,与盐城开展进一步合作。

盐城处于长江三角洲地区,关于贸易试验区的问题,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委会、保税区管理局经济合作发展处副处长张俊作了发言。“加强合作需要快速便捷的沟通设施建设,据报所知,盐城正在加快建设高铁站,盐城与上海地域相近、人文相通,密切合作还需大力加强产业投资、期待盐城有更多企业到上海自贸区投资。”张俊说。

盐城晚报讯 昨天上午,由盐城师范学院承办、山东大学协办的第十届泛黄海中日韩产官学宫大学校长论坛在盐举行。来自中、韩、日三所22所大学的校长、专家、学者、高山、韩、盐城师范学院教授等代表300余人参加了本次会议。

本次会议的主题是“产官学宫合作与创新”。会上,山东大学校长张荣作了大会主题演讲,南京工业大学、日本福冈大学、韩国广川大学、南首尔大学、韩国全北大学、日本九州工业大学等六所大学和校长在大会论坛上作了精彩报告,日本长崎大学、扬州大学等国内校外10所高校在分会场论坛上进行了深入交流和讨论。

高校作为知识创新的主要发源地,进一步加强校地校企合作,创新服务社会服务是高等学校创新能力的体现,也是高等学校自身内涵式发展的必然要求,更是

现代大学的责任和使命。产、官、学三方共同研究和解决制约合作深入开展的问题和难点,明确合作新思路,建立协同创新工作机制,这是做好产学研合作的重要保障。构建产学研合作平台,是推动科研成果和项目落地生根,助力产业做大做强的重要依托。

参加论坛的校长、专家、学者们一致认为,随着区域产业能级发展,创新驱动的势头不断加强,产官学宫合作、交流协同创新是当今世界科技创新的正确路径,更是在提高学校方面的重要任务。中、韩、日三所高校应进一步加强人才培养、科学研究等方面的合作和大学之间的联系,密切三国产、官、学、研合作关系,积极探索产学研合作的新道路,促进泛黄海区域经济技术合作。

盐城晚报记者 徐群

为区域经济合作作出突出贡献

6机构(个人)获泛黄海经济交流大奖

□盐城晚报记者 陈婷

盐城晚报 昨天下午,在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委员会全体会议上,中国泛黄海地区经济合作委员会、日本九州经济联合会、韩国经济协力会共同对5家机构和个人授予“2016年泛黄海经济交流大使”,以表彰他们对泛黄海地区经济合作作出的突出贡献。

“得知获得这个奖项，昨天晚上就睡不好觉，到北亚共同体举行了‘套雷奖’”韩国农业部长官李承律说。此次交流大受启发，李承律表示，韩国自身也是受鱼翅的症一个患者，韩国人吃鱼翅是鱼翅产业链上的一环，所以，以后将尽量从最大的努力促进北亚地区间合作与交流。李承律说，韩国将积极推动与越南、柬埔寨合作，并将在推动与泰国、老挝、缅甸合作方面发挥了积极作用，将做出“建设清川江海陆通道”的合作建议。

除了李承德,此次获奖的5家机构分别是:中国江苏省商务厅、中国青浦区国际经济合作区管委会、日本公益财团法人西日本产业贸易会展办公、日本清水工务株式会社、韩国产业公社。

江苏省商务厅是主管江苏省国内外贸易与际经济合作的政府组成部门。多年来积极推动对日韩经贸合作交流,连续两次在省内连云港市及盐城市共同承办泛黄海经济合作年会议,并通商高层互访及经贸合作交流会,深化江苏省与日韩经贸合作。

中韩 97 家企业“一对一”商务洽谈
达成合作意向项目 46 个

盐城晚报讯 昨天上午,在第15次泛黄海中韩贸易洽谈会上,中韩两国97家企业、园区以及研究院,近300人进行了“一对一”的洽谈,达成合作意向项目46个,其中来华投资或技术合作项目24个。

据了解，此次有超过 200 家中国、韩国两地企业报名参加洽谈会。经过双方企业前期沟通，韩国能源技术研究院、信息和科技株式会社、大韩机械工业株式会社等 27 家韩国企业已经研究完初步意向，与中国方面在江苏、山东、河北、福建等 4 个省（市）70 家企业参加，参会企业名单是韩国现代起亚三星 LG 等知名公司的配套企业，拥有较大的发展空间。

此前，会务组对报名参加企业、进行精准配对，包括配对企业、对产品、配对场次等信息，洽谈会采取“一对一”洽谈模式，共开展了150多次与韩方企业，由中方企业、园区等多方为企业进行材料。双方企业围绕大数据、新材料、智能制造、节能环保、新能源汽车、健康美容

青浦国际经济合作区作为青浦与韩国在创新研发领域高端合作的载体,积极推进环境创新与高新技术、创新产业相融合,产业园区建设。迄今与日韩双方开展了良好合作,为中韩两国合作树立典范。

日本清水铁工株式会社是一家生产销售钢铁产品的企业。多年来在日本积极开展投资经营的同时,积极致力与巧处理等节能环保领域合作,并为其在良好的日本城市间与人连金州区筑成良好的城市风景线,有力推动了因俄地方

经贸合作发展。

三、公益财团法人西日本兴产贸易振兴会是以管理运营展览场馆、为振兴产业举办商品交易会及主要职能的公益财团。多年来与日本国有企业一道将中、韩优秀产品推向日本市场，特别在综合开发、节能技术等领域为两国企业洽谈和技术对接搭建平台。

韩国产学研联合会积极致力于推动中日韩三国技术领域合作,近六年来为多个三国产学研合作课题提供资金支持,与中韩两国开展科技人才领域交流。

以及跨境电商等产业,进行贸易、技术等方面的合作交流。

据初步统计,本次商务洽谈会达成合作意向项目46个,其中来沪投资或技术合作重点项目24个。昨天下午,韩国MITY株式会社、世韩株式会社等6家企业分别

玻纤复合材料产业园等企业(园区)联合授牌,事宜进行实地考察。初步达成贸易往来项目22个,江苏大丰海融国际物流公司、山东新华国际贸易公司等中方企业也积极加强与韩国企业洽谈,希望成为清洁能源、生活美容等产品的区域总代理。

盐城晚报记者 陈婷

泛黄海商务论坛取得预期效果
为三国多领域合作
搭建平台

盐城晚报 昨天上午,在第五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暨黄海商务论坛上,来自中日韩三方政府、经济团体、企业和大学的12名代表,围绕绿色创新与开放融合这个主题作了主题发言。主办方表示,本次泛黄海商务论坛取得了良好的初期效果。

论,进一步构建了三门峡三方企业生态资源、联合制造、跨境贸易、产业园区等环境友好合作平台。在次流域内推出了三个能减轻环境合作模式。三个典型示范合作项目,四个跨境电、商务合作项目和对两个跨境贸易、物流相结合的综合比合作项目,这些项目为进一步合作建立了良好的技术与资源互补关系,提出了新的研究课题与合作方案。

会议还密切了三国政府、经济团体和企业之间的经济合作关系。论坛期间,中日韩三方首脑就技术创新与开放融合,探讨了三国之间的产业政策支持、产业发展、贸易规则、技术合作和劳动合作等方面的问题。会议期间,三国政府、工商界和民间组织代表共同进行了广泛的沟通和交流,大家探讨了共同关心的问题,加深了相互了解,为进一步扩大经贸合作奠定了坚实基础。

论坛提高了与会人员对于绿色创新和开发融合的认识。论坛的一些参与者,涉及到制造业、制造业和交通领域的很多不同类型问题,技术先进,信息含量高,针对性强,令与会者耳目一新,特别感到收获很大。

中人口界三方还将针对论坛提出的问题,进行深入研讨,其第一步是本次论坛的项目日和成果,推进泛黄海湾区贸易、投资、技术等领域交流合作,促进区域经济协调发展。

热诚欢迎记者 曹国良

曹恒 盐城晚报记者

烟台市商务局

Yantai Municipal Bureau of Commerce

首页 | 政务公开 | 办事指南 | 走进烟台 | 经济园区 | 中韩产业园 | 电子商务 | 对外合作项目 | 商务预报 | 新闻资讯 | 政策动态及解读 | 海外经贸信息
分析报告 | 国别资料 | 对外劳务 | 商务诚信建设 | 拍卖管理 | 特殊流通行业监管 | 商贸服务 | 安全生产 | 进口专栏 | 机电进出口 | 展会信息
服务贸易 | 外商投资 | 境外投资 | 党务公开 | 风险预警

魅力烟台视频欣赏

市商务局赴盐城参加第十五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

来源:烟台市商务局 首发子站:亚洲经贸联络科 首发栏目:新闻资讯 日期:2016/7/15

7月12-14日,中韩(烟台)产业园建设推进办公室副主任、投资促进局局长陈新姿带队赴江苏盐城参加第十五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宣传我市投资环境,推介中韩(烟台)产业园,推进中日韩产业融合发展。

本届会议,由国家商务部、日本九州经济国际化推进机构(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九州经济联合会)、韩国产业通商资源部共同主办,中日韩三国300多名代表分别参加了泛黄海会议全体会议、泛黄海商务论坛、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泛黄海官产学研合作大学校长座谈会、商务洽谈会等系列活动,探讨三国在能源环境、高端制造、跨境电商及物流等重点领域务实合作,突出绿色经济与创新主题,充实泛黄海地区经济融合的内涵。

在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板块,陈新姿局长代表烟台市作了题为《加快中韩(烟台)产业园建设,全力推进中日韩产业融合发展》的专题发言。

版权所有© 2005-2006 烟台市商务局 技术支持:烟台国际经贸信息中心 鲁ICP备09017735号

地址:莱山区新苑路3号 邮编:264003 电话:0535-6251739 传真:0535-6247543 E-mail:wymj@yantaimarket.net



鲁公网安备 37061302000043号



江苏教育
JIANGSU EDUCATION

大力推进教育事业

优先发展、科学发展、和谐发展

首页

政务公开

新闻中心

教育概况

网上办事

公众参与

最新动态: 江苏省高校自然科学研究面上项目的通知

关于江苏省高等职业教育产教深

站内搜索: 请输入关键字

搜索

高级搜索

您所在的位置: 首页 > 新闻中心 > 教育要闻 > 教育行

第十届泛黄海中日韩产学研大学校长论坛在盐城举行 省教育厅副厅长洪流出席并致辞

7月13日,第十届泛黄海中日韩产学研大学校长论坛在盐城师范学院开幕。省教育厅副厅长洪流出席开幕式并致辞。来自中国、日本、韩国泛黄海区域的高校校长、专家学者等有关方面代表100余人参加论坛。

洪流在致辞中说,“十二五”期间,江苏高教系统深入实施教育规划纲要,全面深化高等教育综合改革,大力推进高等教育内涵发展,高等教育发展整体水平和综合实力位居全国前列,各项质量指标在全国名列前茅。洪流介绍了江苏高校科技创新情况。他说,江苏高校深入贯彻落实创新驱动发展战略,积极融入国家和区域创新体系建设,推进实施高校协同创新计划,加快各类科技平台建设,大力推进高校科技创新、产学研合作和科技成果转化,全省高校科技创新能力和服务经济社会发展水平大幅提升。

洪流指出,加强政产学研合作,充分发挥自身优势,促进技术创新和产业升级,既是摆在高校面前的重大任务,也是建设高水平大学的必然选择。政产学研合作是高校科技创新、加快科技成果转化的助推剂,是高等教育实现“贡献度显著提高”的有效途径,是高校服务地方经济社会发展的重要抓手,是把科教优势转化为发展优势、竞争优势的关键所在。他说,江苏高度重视政产学研合作,通过采取一系列措施和项目推进,既为我市的经济社会发展提供了有效动力,也为我省高校的发展提供了广阔的空间。

洪流表示,中、日、韩泛黄海区域大学之间初步形成了良好的合作发展机制,政产学研合作积累了较为丰富的经验。举办泛黄海区域大学校长论坛,是中、日、韩有关高校之间教育、科技、文化交流不断深入的重要体现,对促进泛黄海地区的大学发展、政产学研合作具有积极而重要的意义。江苏有关高校要以本次论坛的举办为契机,携手各方力量,共同建设更多、更好、更实的政产学研合作平台,努力为区域经济社会发展做出更大的贡献。

发布日期: 2016-07-13 17:32:26 来源: 科技处

烟台市商务局

Yantai Municipal Bureau of Commerce

首页 | 政务公开 | 办事指南 | 走进烟台 | 经济园区 | 中韩产业园 | 电子商务 | 对外合作项目 | 商务预报 | 新闻资讯 | 政策动态及解读 | 海外经贸信息
分析报告 | 国别资料 | 对外劳务 | 商务诚信建设 | 拍卖管理 | 特殊流通行业监管 | 商贸服务 | 安全生产 | 进口专栏 | 机电进出口 | 展会信息
服务贸易 | 外商投资 | 境外投资 | 党务公开 | 风险预警

魅力烟台视频欣赏

市商务局赴盐城参加第十五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

来源:烟台市商务局 首发于站 亚洲经贸联络科 首发栏目:新闻资讯 日期:2016/7/15

7月12-14日,中韩(烟台)产业园建设推进办公室副主任、投资促进局局长陈新毅带队赴江苏盐城参加第十五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宣传我市投资环境,推介中韩(烟台)产业园,推进中日韩产业融合发展。

本届会议,由国家商务部、日本九州经济国际化推进机构(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九州经济联合会)、韩国产业通商资源部共同主办,中日韩三国300多名代表分别参加了泛黄海会议全体会议、泛黄海商务论坛、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泛黄海官产学研合作大学校长座谈会、商务洽谈会等系列会议,探讨三国在能源环境、高端制造、跨境电商及物流等重点领域务实合作,突出绿色经济与创新主题,充实泛黄海地区经济融合的内涵。

在产业园区+特区合作论坛板块,陈新毅局长代表烟台市作了题为《加快中韩(烟台)产业园建设,全力推进中日韩产业融合发展》的专题发言。

版权所有© 2005-2006 烟台市商务局 技术支持:烟台国际经贸信息中心 鲁ICP备09017735号

地址:莱山区新苑路5号 邮编:264003 电话:0535-6251739 传真:0535-6247543 E-mail:wymj@yantaimarket.net



鲁公网安备 37061302000043号



江苏教育
JIANGSU EDUCATION

大力推进教育事业

优先发展、科学发展、和谐发展

首页 | 政务公开 | 新闻中心 | 教育概况 | 网上办事 | 公众参与

最新动态: 度江苏省高校自然科学研究面上项目的通知

关于江苏省高等职业教育产教深

站内搜索: 请输入关键字

搜索

高级搜索

您所在的位置: 首页 > 新闻中心 > 教育要闻 > 教育厅

第十届泛黄海中日韩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在盐城举行

省教育厅副厅长洪流出席并致辞

7月13日,第十届泛黄海中日韩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在盐城师范学院开幕。省教育厅副厅长洪流出席开幕式并致辞。来自中国、日本、韩国泛黄海区域的高校校长、专家学者等有关方面代表100余人参加论坛。

洪流在致辞中说,“十二五”期间,江苏高教系统深入实施教育规划纲要,全面深化高等教育综合改革,大力推进高等教育内涵发展,高等教育发展整体水平和综合实力位居全国前列,各项质量指标在全国名列前茅。洪流介绍了江苏高校科技创新情况。他说,江苏高校深入贯彻落实创新驱动发展战略,积极融入国家和区域创新体系建设,推进实施高校协同创新计划,加快各类科技平台建设,大力推进高校科技创新、产学研合作和科技成果转化,全省高校科技创新能力和服务经济社会发展水平大幅提升。

洪流指出,加强政产学研合作,充分发挥自身优势,促进技术创新和产业升级,既是摆在高校面前的重大任务,也是建设高水平大学的必然选择。政产学研合作是高校科技创新、加快科技成果转化的助推剂,是高等教育实现“贡献度显著提高”的有效途径,是高校服务地方经济社会发展的重要抓手,是把科教优势转化为发展优势、竞争优势的关键所在。他说,江苏高度重视政产学研合作,通过采取一系列措施和项目推进,既为江苏省的经济社会发展提供了有效动力,也为江苏省高校的发展提供了广阔的空间。

洪流表示,中、日、韩泛黄海区域大学之间初步形成了良好的合作发展机制,政产学研合作积累了较为丰富的经验。举办泛黄海区域大学校长论坛,是中、日、韩有关高校之间教育、科技、文化交流不断深入的重要体现,对促进泛黄海地区的大学发展、政产学研合作具有积极而重要的意义。江苏有关高校要以本次论坛的举办为契机,携手各方力量,共同建设更多、更好、更实的政产学研合作平台,努力为区域经济社会发展做出更大的贡献。

发布日期: 2016-07-13 17:32:26 来源: 科技处

中日韩三国专家聚首盐城 探讨泛黄海区域合作新模式

2016-07-13 21:14:23 来源：中新网 责任编辑：

中新网南京7月13日电（记者 于文 谷）7月13日，第15次泛海中日韩科技交流会在江盐城召开。来自中日韩三国、贸易领域的专家，共同探讨三国共同特色领域新开展的新合作模式，进一步密切三国地方间合作关系，全面推动泛海领域融合开展。

中日韩三国互相近邻、互为重要贸易伙伴、人员交流频繁，具有良好的合作基础。泛海中日韩科技交流会是由三国唯一由政府、团体、企业、大学和科研机构共同举办的次区域合作机制，旨在加强中日韩三国泛海领域贸易、投资、技术等各领域的交流合作，以形成开放式的泛海经济圈，促进三国和区域共同发展。

第15次泛海中日韩科技交流会由韩国家商工部、日本九州经济文化推进机构（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局、九州综合）、中国南通商源部共同主办，江苏省商会和盐城市人民政府承办。本次大会主题特色新颖开放融合——以泛海领域为中心，探讨中日韩三国共同特色领域新开展的新合作模式。中日韩三国代表共同参加了泛海领域全体会、泛海官商合作大会校座谈、泛海商协会、中韩·特合作、商洽等系列会议，分别进行了考察。

作为第15次泛海中日韩科技交流会的主办城市，盐城近年经济、日本经济关系日益密切。目前，盐城已成为盐城第一大贸易伙伴和第一大外贸来源地，盐城也成为江苏省大企业最集中的城市，全市已累计成立近千家企业，投资52亿美元，3000万美元以上项目20个，在盐城的企业年销售已突破1000亿元。去年6月1日盐城的中日自贸协定正式明确盐城为中日韩合作城市，更是进一步提升盐城市的开放水平。

同时，盐城与日本的交流合作也不断加强，截至目前全市已累计批准日资项目223个，投资15亿美元。（完）

本文系转载，不代表参考消息网的观点。参考消息网对其文字、图片等其他内容的真实性、及时性、完整性和准确性以及其权利性均不作任何保证和承诺，转载者和相关方自行核实。

第十五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盐举行

2016-07-13 09:39 来源：□□□

7月12日至14日，由□家商□部、日本九州□□□□化推□机□（日本□□□□省九州□□□□局、九州□□□□合□）、□□□□通商□源部共同主□，江□省商□□和□城市人民政府承□的第15次泛□海中□□□技□交流□在□城隆重召□。



中□□宁省商□□副□□唐□非在泛□海中□□□技□交流□□商□□□致□

中□□□周刊-□□□□（□者 □瑜）7月12日至14日，由□家商□部、日本九州□□□□化推□机□（日本□□□□省九州□□□□局、九州□□□□合□）、□□□□通商□源部共同主□，江□省商□□和□城市人民政府承□的第15次泛□海中□□□技□交流□在□城隆重召□。中、日、□三□代表□聚□城，共同□加了泛□海□□全体□□、泛□海官□□合作大□校□座□□、泛□海商□□□、□□□□•特□合作□□、商□洽□□等系列□□，□分□□行了□□考察。

据了解，泛□海中□□□技□交流□□是三□□唯一由政府、□□□体、企□、大□和科□机□共同□□的次□域合作机制，□□□旨在加强中日□三□泛□海□域□□易、投□、技□等各□□域的交流□合作，以形成□放式的泛□海□□圈，促□□□和□□共同□展。□□每年□□一次，目前已□□14次。本次大□主□□□色□新□□放融合——以泛□海□域□中心，探□中日□三□共同□□□□色□□□□新□展的新合作模式，□一步密切三□地方□□□合作□系，全面推□泛□海□域□□融合□展。



日本九州□□□合□麻生泰□□在泛□海中□□□技□交流□□商□□□上致□

□城□□□、日本□□□系日益密切。目前□□已成□□城第一大□易□伴□和第一大外□□源□，□城也成□江□省□□大企□最集中的城市。全市已累□成立近千家□□企□，□投□52□美元，3000万美元以上□目20□，在□□□企□年□售已突破1000□元。去年6月1日□□的中□自□□定正式明确□城□中□□□□合作城市，更是□一步提升□市□□□的□□往□。□城□□□南原市、大邱市、首尔城北□□□友好交流城市，各□(市、□)也分□□□□的10多□城市建立了友好交流□系。同□，□城□日本的□□交流合作也不□加强，截至目前全市已累□批准日□□目223□，□投□15□美元。□城先后□日本茨城□鹿□市□署了友好城市□□；□神奈川□川崎市□署了□□合作□□；□在□京先后□□了智慧城市推介□、□□合作□明□、在日高□次人才座□□、日本商界高端客□□□交流□、□保□□推介□等一系列大型推介活□。

第十五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会议在盐城举行

2016年07月14日 11:24:56 来源：新口口



新口口南京7月14日口(王登科 王成 王磊) 7月12日至14日, 第15次泛口海中口口口口口交流口在口城召口。中日口三口代表口聚口城, 共同口加了泛口海口口全体口口、泛口海官口口合作大口校口座口口、泛口海商口口口、口口口口·特口合作口口、商口洽口口等系列口口, 口分口口行了口口考察。

□城市委□□朱克江□，□城□□□、日本隔海相望，位于中□“一□一路”和□江□□□的□接点位置、是江□沿海中心□□城市和□三角城市群重要成□。近三年，全市□□□量、□政、投□、出口等主要□□指□年均增速全省第一，逆□上□。2015年全市GDP和□政收入分□□居全□同□地□市第15位和第9位，各□主要□□指□均保持□位□增□。□城□行□色□展路□，建□□代□□高地，新能源汽□、□能□保、□□能源、大□据、智能□端、合金新材料、海洋□□及健康旅游□等一批新□□□□迅速崛起，引□全市□□直奔中高端。在保持□□□健增□、□□提升的同□，全市生□□境大幅改善，到□郁郁葱葱，空□□量保持全□前列、全省□□，□具□力和活力的“□金海岸”正成□外地人向往、本地人自豪的美□家□。□城因此而成□□家可持□□展□□□、□家□新型□点城市、中□□□之城、中□十佳最具潜力□展城市和最美中□·生□旅游目的地城市。

朱克江表示，□城全方位加强□外□放合作，□包括□□、日本在□的170多□□家和地□□展□□合作，□“一□一路”沿□40多□□家和地□密切合作，□□□南原、日本鹿□等20多□□外城市（□）□□友好□系，全市已累□批准外□□目5600多□。在中□商□部、□□□□通商□源部大力推□和各位的□心支持下，□城成□中□□□政府商定的地方合作城市。中□□城□□□□已落□□代起□、摩比斯、京信□子、□代工程、新□□行等近1000家□□企□，□投□70多□美元。2015年，□城新批□□企□□同比增□10.8%；□□□易27□美元，其中□□出口增□60.7%。第四代中外合作□□——中□□城□□□□，正成□江□乃至全□□放型□□的“新名片”。同□，□城不□深化□日本的□□交流合作，日本是□城第三大□易□伴、第三大投□□源□，全市累□批准日□□目228□，□投□9□美元。2015年，全市□日本□易3.6□美元，出口增□8.5%。□城□日本□□□易促□□□等□□□体，伊藤忠、三菱、□弥功等世界500强企□建立了良好的合作□系。

朱克江强□，借助泛□海□□技□交流□的□一重要平台，中日□三□在□□□□、技□□展、人才等方面□□□展合作，推□了□□技□交流合作，促□了各自的□□快速□展。□次□□在□城□□，□全面□大□城□外□放合作，□一步推□泛□海地□□□技□合作向更大范□、更大□域和更高□次□展，□□□乃至世界□□□展做出□□□□。□城□□□落□此次□□成果，推□中□□城□□□□建□，着力□展□日本、□□□□合作，致力打造“一□一路”建□先行基地和泛□海□域□放合作□□基地，□□固和□大中日□□□技□交流合作，促□泛□海地□可持□□展和□域□□一体化，作出新的努力。

据了解，泛□海中日□□□技□交流□□是三□□唯一由政府、□□□体、企□、大□和科□机□共同□□的次□域合作机制，□□□旨在加强中日□三□泛□海□域□□易、投□、技□等各□□域的交流□合作，以形成□放式的泛□海□□圈，促□□□和□□共同□展。□□每年□□一次，目前已□□14次。本次大□主□□□色□新□□放融合——以泛□海□域□中心，探□中日□三□共同□□□色□□□□新□展的新合作模式，□一步密切三□地方□□□合作□系，全面推□泛□海□域□□融合□展。

[□□：□任芳]

泛黄海中日韩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在盐城举行

王荣平出席开幕式并致辞

2016-07-14 10:57 来源：盐城新闻网-阜大网

【盐城】7月13日上午，由商务部亚洲司、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共同主办的第10届泛黄海中日韩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在盐城范院拉开帷幕。来自中、日、韩322所大学的校长、专家、学者共300余人参加。市委书记王荣平出席开幕式并致辞，省政协副主席洪流，山师大校长等，中科院院士、南京工大校长等，副市长葛军等出席。

盐城新闻网-阜大网 7月13日上午，由商务部亚洲司、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共同主办的第10届泛黄海中日韩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在盐城范院拉开帷幕。来自中、日、韩322所大学的校长、专家、学者共300余人参加。市委书记王荣平出席开幕式并致辞，省政协副主席洪流，山师大校长等，中科院院士、南京工大校长等，副市长葛军等出席。

作为第15次泛黄海中日韩科技交流的重要品牌活动之一，本届产学研官大学校长论坛主题是“官产学研合作新平台”，由王荣平作主旨演讲，南京工大、南京范大和日本福大、日本九州工大、川大、全北大等6所大学作报告，日本崎大等国外10所高校在分论坛上进行交流。参加的大学校长、专家、学者一致表示，泛黄海地区加强人才培养、科研等方面的合作和大国之间的合作，密切三边、官产学研合作，积极探索官合作的新机制，进一步促进泛海区域科技合作。

王荣平在致辞中对海外嘉宾的到来表示欢迎。在简要介绍盐城经济社会发展情况后，他指出，泛黄海地区是世界人口增长速度最快的地区之一，聚集了众多著名的高校、企业和科研机构，拥有雄厚的人才和科技力量。三地地理位置相近，优势互补，在人才培养、科研等领域有着良好的合作前景，尤其是泛海地区大国的合作，将促进三地人才培养、科技新、繁荣和社进步具有重要的推动作用。

王荣平指出，盐城素有崇文重教的史，始终坚持把新和人才强市略作推动社发展的重要略之一，突出出台了一系列政策措施推动大、企、政府之深化合作。此次论坛，将进一步密切盐城泛海地区大国之间的合作以及交流和合作。我市以此为契机，将借国外高校在人才培养等方面的丰富和成果，积极探索政金合作的有效途径，充分发挥政府主导作用，在人才引进、平台建设、政策引导、成果转化、境化等方面下更大功夫，推动国外高等院校、科研院所合作交流，建联合，实施合作，努力把盐城建成家新型城市。

中日韩三国专家聚首盐城 探讨泛黄海区域合作新模式

2016-07-13 21:04:58 来源：中国新闻网 作者：{中新记者姓名} 责任编辑：

2016年07月13日 21:04 来源：中国新闻网 参与互动



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 于文 摄

中新网南京7月13日电（记者 于文 谷）7月13日，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江盐城召开。来自中日韩三国、贸易领域的专家，共同探讨三国共同利益和区域合作的新模式，进一步密切三国地方间合作关系，全面推动泛黄海区域融合发展。

中日韩三国互相近邻、互为重要贸易伙伴、人员交流频繁，具有良好的合作基础。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是三国唯一由政府、民间团体、企业、大学和科研机构共同举办的次区域合作机制，旨在加强中日韩泛黄海区域贸易、投资、技术等各领域的交流合作，以形成开放式的泛黄海经济圈，促进三国共同发展。

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由韩国家商工部、日本九州经济振兴局（日本九州经济振兴局、九州经济振兴局）、中国商务部共同主办，江苏省商务厅和盐城市人民政府承办。本次大会主题“开放融合——以泛黄海区域为中心，探讨中日韩三国共同利益和区域合作的新模式”。中日韩三国代表共同参加了泛黄海全体大会、泛黄海官民合作大会、泛黄海商民大会、中韩·特设合作、商洽会等系列会议，分别进行了实地考察。

作为第15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的主办城市，盐城近年与日本关系日益密切。目前，盐城已成为盐城第一大贸易伙伴和第一大外贸来源地，盐城也成为江苏省大企业最集中的城市，全市已累计成立近千家日企，投资52亿美元，3000万美元以上项目20个，在盐城日企年销售已突破

1000□元。去年6月1日□□的中□自□□定正式明确□城□中□□□□合作城市，更是□一步提升□市□□□的□□往□。

同□，□城□日本的□□交流合作也不□加强，截至目前全市已累□批准日□□目223□，□投□15□美元。(完)



政策紹介 || 報道発表 || イベント情報 || 補助金・公募 ||

九州経済産業局 > 報道発表
> 政策紹介

「第15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を中国江蘇省塩城市で開催しました

～294名の九州・韓国・中国の産学官関係者が一堂に会し、今後の協力方策等を議論～

平成28年7月14日

九州経済産業局

1. 九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会長：（一社）九州経済連合会 麻生 泰会長、顧問：九州経済産業局 岸本 吉生局長）は、2016年7月12日～13日、中国江蘇省塩城市において、中国商務部、韓国産業通商資源部と連携・協力して、九州・韓国・中国の環黄海地域における産学官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る「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以下、「環黄海会議」という。）を開催しました。
2. 九州からは、「九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メンバーの他、企業、大学などから54名が参加し、中国からは商務部 宋耀明（ソン ヤオミン）亜州司商務参事はじめ、156名が、韓国から産業通商資源部 曹 永泰（ジョ ヨンテ）貿易調査室長はじめ、84名が参加しました（参加総数294名）。
3. 2017年の次回開催地は、九州・鹿児島県に決定、今後開催時期及び内容を検討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4. 今回の会議の概要は以下のとおりです。
 - (1)「環境に配慮したイノベーションと開放的な融合」をテーマに、九州・韓国・中国の環黄海地域における経済交流促進を協議。「環黄海ビジネスフォーラム」、「環黄海産学官連携総（学）長フォーラム」などの5つの事業を実施。
 - (2)本会議では、各事業の総括、各国からの提案発表にあわせ、「第二回 環黄海経済・技術交流大賞」を九州・韓国・中国の各二者に授与。
 - (3)三国局長会議では、①中国の四省三市と九州・韓国との地域間交流の促進、②産学クラスター間の交流促進、③クルーズ船の環黄海新航路や三地域間の観光パンフレットを共同して開発することが議論された。今後、具体的な成果に結びつけるよう次回会合に向けて検討を継続することとなった。
 - (4)2017年に九州・鹿児島県で開催される第16回環黄海会議では、三地域間における安心・安全の向上の観点を持って食や観光ビジネス等をテーマとして検討することとなった。

別添資料

- ・各事業の結果 (PDF:37KB)
- ・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等写真(PDF:331KB)

関連リンク

2016年「環黄海経済・技術交流大賞」の九州における受賞者が決定しました

本発表資料のお問い合わせ先

九州経済産業局 国際部 国際課長 松谷、国際事業課長 谷川

担当者：岡山、金森、橋爪

電話：092-482-5423、5942



※PDF形式の資料について

Adobe Acrobat Readerの最新バージョンはこちらから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九州経済産業局 〒812-8546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博多駅東2丁目11番1号 福岡合同庁舎本館（6階、7階）

> 周辺図・交通案内 > 組織表&電話番号一覧（ダイヤルイン）

| リンク | 利用規約 | 法的事項 |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 |

Copyright © Kyushu Bureau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ll Rights Reserved.

韓中日が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開催 協力模索

聯合ニュース 7月13日(水)16時34分配信

【世宗聯合ニュース】韓□と中□、日本の産□官による第15回環□海□□□技術交流□議が12、13の□日、中□□江蘇省塩城市で開かれた。

「環境に配慮したイノベーションと開放的な融合」をテーマに、韓□産業通商資源部、中□商務省、日本□□産業省の九州□□産業局が共催した。3カ□の政府、地方自治体、大□、□研究所、企業などの□係者約300人が出席した。

韓中日の環□海地域の都市が貿易、投資、産業技術協力を模索する同□議は、2001年から□年3カ□の持ち回りで開かれている。

産業通商資源部は今回の□議について「新興□の成長鈍化、英□の□州連合（EU）離□問題などで世界の不確□性が高まる中、環□海地域を中心に□□協力□係を□化することに意義がある」と□明した。

□議では、新たな□□協力モデルを□掘し、環□海地域の□展と□□交流の□大に寄□した□体と個人に贈られる「環□海□□□技術交流大賞」の授賞式が行われた。

また、3カ□の政府代表は、加工食品、化粧品、□療ヘルスケア、産業□地、電子商取引、貿易投資、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共同□究分野の□行策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

韓中日が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開催 協力模索

【世宗聯合ニュース】韓□と中□、日本の産□官による第15回環□海□□□技術交流□議が12、13の□日、中□□江蘇省塩城市で開かれた。「環境に配慮したイノベーションと開放的な融合」をテーマに、韓□産業通商資源部、中□商務省、日本□□産業省の九州□□産業局が共催した。3カ□の政府、地方自治体、大□、□研究所、企業などの□係者約300人が出席した。韓中日の環□海地域の都市が貿易、投資、産業技術協力を模索する同□議は、2001年から□年3カ□の持ち回りで開かれている。産業通商資源部は今回の□議について「新興□の成長鈍化、英□の□州連合（EU）離□問題などで世界の不確□性が高まる中、環□海地域を中心に□□協力□係を□化することに意義がある」と□明した。□議では、新たな□□協力モデルを□掘し、環□海地域の□展と□□交流の□大に寄□した□体と個人に贈られる「環□海□□技術交流大賞」の授賞式が行われた。また、3カ□の政府代表は、加工食品、化粧品、□療ヘルスケア、産業□地、電子商取引、貿易投資、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共同□究分野の□行策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

2016年7月13日16時3分配信 (C)YONHAP NEWS

韓中日が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開催 協力模索

2016/07/13 16:33

【世宗聯合ニュース】韓と中、日本の産官による第15回環黄海技術交流会議が12、13の両日、中国江蘇省塩城市で開かれた。

「環境に配慮したイノベーションと開放的な融合」をテーマに、韓産業通商資源部、中国商務省、日本産業省の九州産業局が共催した。3カ国の政府、地方自治体、大企業、研究所、企業などの関係者約300人が出席した。

韓中日の環黄海地域の都市が貿易、投資、産業技術協力を模索する同会議は、2001年から毎年3カ国の持ち回りで開かれている。

産業通商資源部は今回の会議について「新興国の成長鈍化、英欧のEU離脱問題などで世界の不確実性が高まる中、環黄海地域を中心に協力関係を強化することに意義がある」と明した。

会議では、新たな協力モデルを掘り出し、環黄海地域の発展と相互交流の拡大に寄与した団体と個人に贈られる「環黄海技術交流大賞」の授賞式が行われた。

また、3カ国の政府代表は、加工食品、化粧品、医療ヘルスケア、産業用地、電子商取引、貿易投資、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共同研究分野の行策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

hjc@yna.co.kr